

# 무등산 생태계 살아있다

### 3월 부화한 올챙이 개구리로 성장

### 서식지 민감한 양서류 대량 서식 관찰

### 국립공원사무소 환경 개선 노력 '효과'



도롱뇽



무당개구리

무등산 장불재 일원 습지에서 올 봄 산란해 부화했던 올챙이들이 개구리로 화려한 변신에 성공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측은 물과 공기 질 등 서식 환경 변화에 유독 민감한 개구리 등 양서류가 산란, 부화, 변신 과정을 안정적으로 치뤘다는 점에서 무등산 생태계 건강성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반기고 있다.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는 해발 900m 무등산 장불재 일원 습지(1평 너비 웅덩이)에서 지난 3월께 산란, 부화한 올챙이들이 개구리로 변화한 것을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무등산동부사무소 야생생물보호단이 최근 장불재를 모니터링한 결과 조그만 습지 군데군데서 무당개구리, 참개구리, 북방산개구리, 도롱뇽 등 양서류 서식이 관찰됐다. 지난 3월 태어난 알들이 갈수기를 거쳤지만 올챙이에서 개구리로 무사히 변태에 성공한 것이다.

그간 장불재~백마능선 일부 탐방로에서는 북방산개구리 등이 봄에 비가 내리면 집중산란했지만 서식 환경이 불안정해 개구리로 변태에 성공하는 개체는 제한적이었다. 무등산동부사무소 측은 이 같은 사정을 파악하고 양서류 산란 전 서식지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벌였다. 웅덩이를 좀더 파고 손바닥 크기의 독을 쌓아줘 자연스럽게 물이 고이도록 한 결과 양서류가 안정적으로 생육 가능하게 된 것이다.

나경태 무등산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생태계 중간자 역할을 하는 양서류 서식은 무등산 장불재 생태환경이 건강하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국립공원사무소 측은 이 같은 사정을 파악하고 양서류 산란 전 서식지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벌였다. 웅덩이를 좀더 파고 손바닥 크기의 독을 쌓아줘 자연스럽게 물이 고이도록 한 결과 양서류가 안정적으로 생육 가능하게 된 것이다.

나경태 무등산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생태계 중간자 역할을 하는 양서류 서식은 무등산 장불재 생태환경이 건강하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광주 시내버스 총파업 예고

### 비정규직 776명 정규직 전환·임금 인상 쟁점...노조, 내일 찬반 투표

광주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광주버스운송사업자 조합과 광주시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노조 측은 1년 단위로 사측과 재계약을 하는 776여명의 비정규직 운전원(중형버스)을 전원 정규직화한다면 고등 분담 차원에서 임금 인상 요구안을 대폭 낮추고 노사 협상이 성실히 나서겠다고 밝혔다.

28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광주지역버스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 3월부터 6차례에 걸쳐 임금협상을 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지난 15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노사는 지난 23일과 27일 1, 2차 조정을 통해 각각 임금 7.5% 인상과 2% 인상을 제시하는 등 입장차를 보였다.

노조는 특히 협상 과정에서 임금 인상만큼이나

비정규적인 중형버스 운전원 776명의 정규직화에 애착을 보이고 있다. 1년마다 사측과 재계약해야 하는 처지여서 지위가 불안정한데다 동일 사업장, 동일 노동인해도 그 처우가 열악하기 때문이다. 노조는 이와 함께 기존 정규직 호봉을 계속 올리지 않는 조건으로 정년을 만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방안도 협상 내용에 포함시켰다.

광주 시내버스 노사는 29일 광주시 동구 광주버스운송사업조합 사무실에서 3차 조정을 진행한다. 사측은 조정이 결렬되면 특별조정기간 연장(15일)을 통해 교섭을 진행할 방침이지만, 노조는 30일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박제수 노조위원장은 "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은 노동자로서 최소한의 권리 보장을 위한 요구이므로 물러설 수 없다. 사측과 함께 사측

에 예산을 지원하는 광주시가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를 운행하는 시내버스 1041대의 운전원은 총 2500여명으로, 이 중 870여명은 중형버스 운전원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대성여고 학생회장 선거 열기 28일 광주시 남구 진월동 대성여고 정문에서 '2016~2017년 학생회장'에 임후보한 학생들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 학교는 광주시선관위의 도움을 받아 30일 전교생이 인터넷으로 투표를 진행한다. /김진수기자 jeans@

###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21    해질 19:51    달돋이 01:06    달지름 14:07

#### 아침 안개 주의

흐리고 비가 오다가 오후에는 흐리겠다.

◇ 지역별 날씨 (°C)

광주	비온뒤맑음	21/27	보성	비온뒤맑음	19/25
목포	비온뒤맑음	20/26	순천	비온뒤맑음	20/26
여수	비온뒤맑음	21/24	영광	비온뒤맑음	20/27
나주	비온뒤맑음	20/27	진도	비온뒤맑음	21/26
완도	비온뒤맑음	21/25	전주	흐림	21/29
구례	비온뒤맑음	19/27	군산	흐림	20/27
강진	비온뒤맑음	21/26	남원	흐림	20/28
해남	비온뒤맑음	21/26	홍산도	비온뒤맑음	19/23
장성	비온뒤맑음	20/26			

◇ 바다 날씨

해역	바다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동~남동	0.5~1.0	남동~남	0.5
	면바다	동~남동	0.5~1.5	남동~남	0.5~1.0
남해	앞바다(동)	북동~동	0.5~1.0	동~남동	0.5~1.0
	면바다(서)	북동~동	0.5~1.5	동~남동	1.0~1.5

◇ 생활지수

- 식중독: 주의
- 자외선: 보통
- 피부질환: 보통

◇ 물때

목적	밀물		썰물	
	시간	높이	시간	높이
목포	08:46	01:36	21:36	14:21
	21:36	14:21	03:41	10:09
여수	03:41	10:09	16:40	22:36
	16:40	22:36		

◇ 주간 날씨

날짜	날씨	날짜	날씨	날짜	날씨	날짜	날씨
30(목)	☀	7/1(금)	☀	2(토)	☁	3(일)	☁
21/28		22/28		22/27		22/27	

# DREAM HIGH CONTEST

## -제2회-

### 행사가요

드림하이 콘테스트는 다양한 끼와 예술적 재능을 가진 청소년들이 자신의 실력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청소년들이 만들어가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된 행사입니다.

### 심사일정

대회날짜	대회장소
예선 2016년 7월 16일(토) 오후 1시 ~	목포해양수산센터공연장(복합)
본선 2016년 7월 31일(일) 오후 5시 ~ 7시 30분	목포항구축제 주무대(삼학도)

\* 전라남도 내 거주 청소년은 예선에 직접 참가해야하며, 그 외 지역 청소년은 SNS로 예선 참가 가능합니다.

### 주최

세마을문고목포시지부

### 후원

목포시, 광주일보

### 접수기간

2016년 6월 20일 ~ 7월 14일 까지

### 지원자격

20세 미만 청소년 (남녀무관)

### 접수방법

이메일접수 02dreamhigh@naver.com  
이름(그룹명), 나이, 장르, 연락처 기입

### 시상내역

대상	시상	시상내역	시상인원
대상	목포시장상	상금 1,000,000원+기념패	1
금상	목포시의정상	상금 300,000원+기념패	1
은상	목포시교육장상	상금 300,000원+기념패	1
동상	세마을문고목포시지부위원장상	상금 200,000원+기념패	3
특별상	광주일보상	상금 100,000원+기념패	1
특별상	호남타임즈상	상금 100,000원+기념패	1

기타 자세한 문은!?  
전화문의 010.6556.8260  
드림하이 콘테스트 페이스북 페이지 문의 <https://m.facebook.com/dreamhighinmp/?fref=ts>

## 뉴스&정보 브리핑

### 7월부터 65세 이상 틀니·임플란트 50% 건보 혜택

70세 이상 노인에게만 적용되던 임플란트·틀니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본인부담률 50%)이 다음 달부터는 65세 이상인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차야 1개당 120만원이 넘는 임플란트 시술 비용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으면 절반만

60만원대로 줄어든다. 결핵 환자의 치료비는 100% 건강보험이 부담한다. 환자 입장에서는 무료로 결핵을 치료 받을 수 있다. 결핵 치료 중인 환자 연간 약 7만 3000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 스마트폰 하루 3시간 이상 사용하면 안질환 발생률 3배 ↑

서울대병원 박수경(예방의학)·유형곤(안과) 교수팀이 서울, 부산, 시흥에 사는 중고등학생 73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스마트폰 하루 사용시간(2시간 미만, 2시간, 2시간 이상 사용)이 길어질수록 안구 자각증상을 호소하는 청소년이 많았다.

하루 2시간 미만 사용자보다 2시간 이상 사용하는 청소년은 7개 증상 중 3~4개 증상을 가질 가능성이 약 1.7배, 5개 이상 증상을 가질 가능성이 약 2.2배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하루 3시간씩 스마트폰을 1년 동안 사용한 청소년에 비해 하루 3시간씩 4년 넘게 사용한 청소년은 5개 이상 증상을 가질 가능성이 약 3.1배 더 높았다.

### 자동차출입국심사대 이용 연령 14세→7세로 확대

7월5일부터 자동차출입국심사대 이용 연령이 14세 이상에서 7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7세 이상 국민은 누구나 복수여권,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을 지참해 인천공항·서울·부산출

입국관리사무소 등을 방문하면 자동차출입국심사 등록이 가능하다. 다만 7세 이상 14세 미만 아동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발급 3개월 이내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부모 여권 등이 추가로 필요하다.

### 약국 앞 의약품 자판기 설치 허용 추진

보건복지부는 환자가 심야 시간이나 공휴일에 약사의 복약지도를 거쳐 의약품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8월2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약국의 내측 또는 경계면에 약국의 시설로서 의약품 투약기를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즉 약국의 벽면에 외부를 향한 의약품 자판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